

“주차 빌런 남의 일 아니다” 불안에 떠는 아파트 경비원들

반복되는 민원·불만에 스트레스…폭언·폭행·협박 등 번져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경찰 개입 어려워 경비원 부담 가중

※.“협박 메모만 없을 뿐이지 주차 문제로 항의하는 입주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잡지 못하면 경비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자신의 차가 못 나가면 경비원에게 와 항의하고 먹살을 잡는 경우도 있다. 주차 문제 뿐이겠냐. 경비원이 심부름꾼인 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광주시 서구 화정동 U아파트 입주자가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 광주일보가 만난 아파트 경비원들은 비밀비제한 일인데 호소할 데가 없어 참고 지낸다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벌어지는 이중주차·통로 막기 등 기이한 ‘주차 빌런’ 등의 문제가 경비원을 향한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민간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비원들은 혹시 일하는 데서 불이익을 당할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남 일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금지불까지 세워도 일부 입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는 게 경비원들 하소연이다.
빛고을경비원협의회 최승철 상임고문은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인해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입주민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비원을 찾아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서 “관리사무소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경비원한테 모든 책임이 귀결돼 입주민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반복되는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 경비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경찰도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아파트 단

지 내 주차 공간 갈등 등은 아파트 관리 규약 등 자율규정을 통해 운영되는 점을 들어 경찰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부담은 실무 최전선에 서있는 경비원들에게 떠넘겨지는 형편이다. 특히 입주민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서 분쟁으로 넘어간 경우도 꾸준히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따르면 주차 관련 분쟁은 지난 2020년 27건, 2021년 18건, 2022년 10건, 2023년 10건, 2024년 8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드러나는 분쟁 건수는 적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고 주차 공간 부족이나 규칙 미준수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주차 분쟁”이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내부기구를 통해 중재하는 게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경비원 등 관리 주체가 감정적 갈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주차 의식을 갖고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자체 규약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개구쟁이들의 여름 나기 13일 화순군 화순천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뜰채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동구 ‘무등산 화장실’ 무관심 행정 사과하라”

환경단체 성명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무등산 토끼등·장불재 화장실 신축(광주일보 7월 9일 7면)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립공원공단·광주시와 동구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무등산은 국립공원(2013년), 국가지질공원

(201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018년)으로 등재된 3관왕의 산”이라며 “무등산 화장실 신축을 놓고 벌이는 이들 기관의 행태는 가히 해외토피캉으로, 불성사남다”고 비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끼등 뿐 아니라 장불재 화장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조치 요구나 등산객들의 반발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국립공원 무등산에 들어서는 조형물의 경우 기능적인 공간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환경·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역할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공단, 광주시, 동구가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설치 권고기준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복 80년 ‘전남 義 교육과 학술·문화 축제’

도교육청, 순천시 오늘까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지역 학생들이 기획한 ‘전남의 의(義) 교육과 학술·문화 축제’가 순천에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광복 80주년 되찾은 빛으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교육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가 기획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배움·공론·공유의 장이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일제 강점기 학생독립운동으

로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목포정명여자중고등학교와 강진대구보통학교 24명의 선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이어 박구용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철학자와 역사 교사가 함께하는 K-민주주의 학술 포럼이 열린다. 김대중 평화 정신, 여순 10·19, 5·18민주화운동, 12·3 계엄 등 현대사의 분기점들이 의로운 교육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오후에는 세종대 호사가 유지 교수가 ‘광복 80년, 평화와 정의의 길’을 주제로 한·일 관계의 역사적 책무와 화해의 가능성을 짚고,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이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라는 질문으로 역사 왜곡과 정치학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14일 오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급에서 실천한 전남 의(義) 교육 교수·학습 사례 나눔이 열린다. 수업자들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 수업, 지역 의병사 방탈출 게임, 민주·인권 토론 활동, 역사 재현극 등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청소년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전과 기획전에서는 전남의 대표적인 항일 인물 80인을 조명한다.
심지숙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축제는 남도의병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여순 10·19의 평화·인권,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연대의 가치를 교육과정에서 녹여 낸 것을 선보인다”며 “학생들이 민주·평화·인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장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후텋지근한 날씨…광주·전남 곳곳 소나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후텋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광주와 전남내륙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광주·전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일 최고기온은 광양읍·보성 별교 34.4도, 광주 조선대·곡성 34.3도, 완도 34.2도 등을 기록했다.

14일 아침최저기온은 23~26도, 낮최고기온은 31~33도를 보이겠고, 15일 낮최고기온은 30~34도가 예상된다. 주말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열대야 현상으로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